



성찬례

유스투스 판 겐트(주스토 디 간트, Justo di Gand, 1430-1480)
1473-1480, 판넬 위에 유채, 마르케 국립 미술관 소장, 이탈리아 우르비노

입당 송 | 시편 98(97),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9,26-31

화답 송 | 시편 22(21),26ㄴ-27,28과 30ㄴㄴ,30ㄷ-32(◎ 26ㄴ 참조)

-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2독서 |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 요한 15,4,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 요한 15,1-8

영성체송 | 요한 15,1,5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주님 사랑 안에 머물다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 |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오늘 부활 제5주일은 '주님 안에 머물', '주님 사랑 안에 머물'이 주제입니다. 독서와 복음이 모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님 안에 머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독서와 복음은 이를 세분화하여 각각 실천적인 머물과 '관상적인 머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문다고 하고, 복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 마르타적인 사랑의 머물과 마리아적인 사랑의 머물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관상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 사랑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고갈되거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 사랑은 가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한 배터리의 사랑과 같습니다. 배터리가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세 고갈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사랑 충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충전되고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이거나 엉터리 기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르타처럼 실천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모든 이웃 사랑 실천이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이웃 사랑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는 그 인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고 그 인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연인 간의 사랑 또는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안에 있고, 사랑하고 난 뒤에도 주님의 사랑이 남아있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렬했던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는다거나 사랑이 어떤 이유로 미움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주님 사랑 안에 관상적으로 머무는 것이 없이 사랑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신호임을 우리는 즉시 알아채야 할 것입니다.



성찬례

오늘 성화는 '성찬례'를 주제로 한 것으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성찬례를 통해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이윤지 마리아 | 배우

반려견 만드레에게

마지막 글을 어떤 주제로 써야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노트북 빈 페이지를 열어놓고 커피를 한 잔 마셔봅니다. 말없이 한 잔을 다 비우고 다시 빈 화면을 쳐다보는 순간, 저의 손은 어느새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려견 만드레에게.’ 네, 맞습니다. 만드레는 2년 전 3월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저희 가족이었던 반려견입니다. 15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노견 만드레는 엄청난 동안을 사랑하던 멧쟁이 요크셔테리어였습니다. 수컷이었는데도 저희 엄마는 ‘엄마’로, 저는 ‘언니’라고 부르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린것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쩔 그리도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경계심 어린 눈빛도, 넘어질 것 같은 걸음걸이까지도 빠져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만드레 이전에는 반려 동물을 키워 본 경험이 없었기에 만드레를 향한 가족들의 사랑은 정말 놀랍도록 헌신적이고 순수했습니다. 이십 대인 저는 물론이고 오십 대 중반의 부모님도 만드레를 쓰다듬기 위해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드레로 인해 저희 오빠에게도 자신이 보살피 주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밤낮없이 촬영장을 오가던 제게도 만드레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밤새 촬영을 마치고 오면 엄마 옆에서 자던 만드레가 문소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깊은 잠을 자던 참이었는데 비몽사몽 네 다리가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옆으로 뛰었습니다. 강아지가 휘청대며 옆으로 뛰는 모습이러니!

만드레가 떠난 후 지금도 그리움과 슬픔 사이에 있는 저의 큰딸 라니는 엄마 왜 울지 않느냐, 만드레가 보고싶지도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저는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슬프고, 지금은 볼 수 없어 많이 그립지만 엄마는 만드레를 다시 만날 것을 진심으로 믿어. 그리고 지금 만드레는 하늘 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눈도 잘 보이고 밥도 잘 먹으면서 신나게 놀러 다니느라 정신 없을 걸?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이야, 그렇지?” 하고 말합니다. 그간 살면서 겪게 되는 혹은 예견치 못한 이별의 고통이 나이가 든다고 견디기 쉬워질까 많이 의심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과 헤어짐을 상상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마치 어른들이 제게 그러했듯, 자못 의연한 척 죽음을 설명하다니요! 헤어짐 앞에 어느 누가 자신만만할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헤어짐 또한 연습시키시는 듯합니다. ‘지금’에 충실하라고 말이지요. 이렇듯 2길로 조금 넘던 작은 만드레가 저희 가족에게 남긴 사랑과 떠나며 알려준 진리는 참으로 큼니다.

“고마워, 만드레야! 우리 다시 꼭 만나자.”

한컷
교리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일곱 번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거룩히 보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임여주 아케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늘 함께하던 친구나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우리 삶에는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 하느님께 따져도 보고 원망도 하면서 우리는 상실감에 따르는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상실에 따른 슬픔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니나, 때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애도할 시간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죽음이 뭔지 잘 모를 거라는 오해, 아직 어리니까 금세 잊을 수 있을 거라는 오해는 남겨진 나이 어린 사람들의 상처를 더 깊게 합니다.

정은주 작가의 동화 《기소영의 친구들》에 등장하는 채린이, 나리, 연화, 영진이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매일 함께하던 친구 기소영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소영이네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말만 할 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소영이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영이 책상 위에 있던 국화 꽃다발이 시들어가고, 반에서 소영이의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소영이와 친했던 친구들 마음속 소영이의 자리는 커져만 갑니다. 친구들은 이제라도 소영이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들은 한데 모여 소영이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울고, 그리워합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소영이를 위해 처음으로 성당을

방문해 연미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소영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러나 소영이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졸업앨범을 들고 네 친구는 소영이의 조부모님이 계신 함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식으로 소영이에게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네 친구는 소영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소영이를 떠올리며 웃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138쪽)고 생각합니다. 서툴지만 진지했던 지난 몇 달이 소영이의 친구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기, 슬픔, 죄책감, 분노, 절망, 후회 등 압도적인 감정으로 고통을 겪는 시기를 지나,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점차 자신의 생활을 회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충분히 애도할 수 있을 때, 남겨진 이들의 삶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영이의 친구들이 이제는 소영이를 마음 한편에 담아두고 미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황망히 떠난 이들이 유독 그리워지는 4월입니다. 떠나간 이를 애도할 수 있는 시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그리고 남겨진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움

(그리스도교의 인간 이해 2)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아침에 미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위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지요. 일상을 살다 보면 불편한 말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단죄하기도 하며, 오만하고 경솔한 행동과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나 자신이 지은 죄 앞에 무너졌다가도 다시 기도로 일어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복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악과 죄는 일찍부터 큰 문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마니교에 맞서 대항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 고뇌했습니다. 그는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실체가 아니고 선의 결핍(privatio boni)에 불과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삶과 관련된 이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죄와 마주칠 때마다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악은 왜 만드셨을까? 완전한 선을 추구하시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셨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느님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자유라는 개념이 연결되어 뒤따라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세상을 한 가지 일변도로 생각해 만드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로움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선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죄악의 굴레가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한계 체험이지요. 죄는 그 자체로 좋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타인과 세상에 피해를 주기도 하기에,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유로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유로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한 용서에서 비롯됩니다.(예페 1,7 참조) 죄로 손상된 인간의 자유로움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지 않고서는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속’(profanus)보다는 신앙에 충실하며 자유로움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인간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죄악의 굴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손상된 인간의 고귀한 형상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본래의 존엄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사목헌장 22항 참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형언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무상으로 선물 받았습시다. 그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화해로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도 충만한 완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자유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성사를 본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말 '보다'라는 말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다의어입니다. '보다'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 '성사를 본다'는 표현은 성사의 의미를 잘 담은 좋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눈으로 지켜본다는 뜻에서 '성사를 본다'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성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고, 마치 남의 일인 양 구경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말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의미의 '성사를 본다'는 표현은 전례 개혁 이전의 미사에 참례하던 교우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국어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허락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개혁 이전에는 모든 미사를 라틴어로 봉헌했습니다. 이 시기,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교우들은 사제와 함께 하는 계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조용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례에 수동적으로 임했던 모습이 '성사를 본다'는 표현에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라면, '성사를 본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성사와 전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러 나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다'라는 말에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무를 보다.', '장을 보다.' 등의 용례에서 그러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해당 뜻에 따라 '미사를 본다'고 표현하는 관례는 초창기 박해 시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교우들이 신자

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한 은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일 보았는가?'였으며 이는 '고백성사 받았는가?'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우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미사를 본다'는 표현이 유래했다는 설명입니다. (가톨릭신문 1985년 11월 17일자 기사 <미사보다>는 말 참조) 이렇게 성사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행한다는 의미에서 '미사를 본다'고 표현한다면, 이는 우리말의 고유함을 잘 살리는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사》,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참조)

그 외에도 '성사를 받는다.', '성사에 참례한다.' 등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됐든, 우리가 성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사에 평신도가 관객처럼 서 있는 구도만을 상상한다면, 성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직자가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것과 별도로, 세례받은 모든 이가 보편사제직으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사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맡아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임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사제직을 받은 백성으로서 전례를 거행한다. 전례 안에서 각 신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고유한 임무에 따라 행동한다. 세례 받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 희생 제물로 바치고, 성품을 받은 봉사자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섬기고자 받은 품계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며, 주교와 사제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제235항)

마음을 정화하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자주 꾸중을 듣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하거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율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애썼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왜 자꾸 그들을 꾸중하시고 비판하셨을까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도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거룩함을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근본정신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태 22,40 참조)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몰랐다가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참되게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율법’, ‘거룩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아닌 윗자리에 앉거나 인사받는 것(루카 11,43 참조) 등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보수’ ‘진보’ ‘우파’ ‘좌파’ 하는 단어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파가 나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쪽에 속해 있던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하느님’과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같은 하느님이시고 같은 복음인데,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똑같은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당에서 신자분들을 위한 사목 행사를 기획한다고 할 때, 주임 신부님과 부주임 신부님 두 분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두 분 다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르침에 따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분열을 일으킨다며, 분열보다 일치를 선택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지만, 너무나 다양한 현실 상황들 안에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다시, 참된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심리-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만 아니라, 그 가치를 바라는 내 마음 깊이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지, 묻고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어쩔 수 없는 사사로운 마음을 보게 된다면, 복음의 참된 가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정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상단 QR코드를 통해 저널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흥근(스테파노)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이흥근(스테파노) 신부님께서 지난 4월 14일(주일)에 선종 하셨습니다. 이흥근 신부님은 195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85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혜화동성당, 군중, 옥수동·홍제동·시흥동·이문동성당 겸 제7 동대문-중랑지구장, 춘천교구 파견, 성사전담사제로 사목하셨습니다. 4월 16일(화)에 장례 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6년 5월 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6년 4월 29일 봉희만 안토니오 신부(70세)

김형식(베드로)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김형식(베드로) 신부님께서 지난 4월 16일(화)에 선종하셨습니다. 김형식 신부님은 1934년 황해도 신계에서 출생하여 1966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제기동·혜화동·명수대(현, 흑석동)·화곡동(현, 화곡본동)·도림동·가좌동(현, 가재울)·가회동·발산동·암사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02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 4월 18일(목)에 장례 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5월 1일(수)은 '근로자의 날'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교구청 알림

명동대성당 중국어미사 안내

때: 매월 첫째·둘째·셋째(주일) 오전 9시
 곳: 명동성당 코스트홀(문화관) 2층 소성당
 문의: 02)774-1784 이주사목위원회

제46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내용: 「찬미받으소서」 1장-6장과 후속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관련 강의, 하늘땅물벗 소개, 수료식 / 대상: 「찬미받으소서」 배우고 실천할 사람
 때, 곳: 5월14일~6월18일 매주(화) 20시~21시30분, 명일동성당(총 6회) / 회비: 1인당 2만원
 신청방법: 명일동성당 하늘땅물벗 푸른길벗에게 직접 신청(주일미사) / 접수: 5월10일(금)까지 마감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함께하는 생명살림강좌

내용: 초기 교회 선교사의 편지와 기록으로 보는 밥상이야기 외 우리 음식문화 2강좌, 미사 주제: 밥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대상: 관심있는 모든 신자, 우리농 활동가 및 회원
 때: 5월16일(목)·23일(목)·30일(목) 매주(목) 10시~12시(3주간) / 접수: 5월10일(금)까지 마감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 501호 / 회비: 3만원(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문의(신청): 02)727-2275, 227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wm.or.kr) 참조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및 예비신학생 5월 모임

1)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123

때, 곳: 5월3일(금) 14시, 명동대성당

2)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5월 모임

학년	때	곳	문의
중1	5월5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5142-2127
중2	5월12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7640-2126
중3	5월19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고1	5월5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서편성당	010-9954-2123
고2	5월12일(일) 오전 9시	성신교정 서편성당	010-9961-2123
고3	5월11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9972-2123
일반	5월11일(토) 오후 2시	성신교정 대성당	010-2577-2123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5월2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이준호 신부(미국 알래스카 선교)

'2024 ·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문의: 02)727-2047

1)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신학	5월16일~30일(목) 19시30분~21시
----	-------------------------

2) 문화 강좌

초보를 위한 디지털 펜 드로잉(반년)	5월22일~6월19일(수) 15시~17시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는 십자가의 길(재팬)	5월22일~6월19일(수) 19시~21시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1일(수)~24일(금)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안내

신청: 4월29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 문의: 02)2269-0413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5월7일(화) 오전 9시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중림동약현성당)
5월11일(토) 오전 9시	1코스 말씀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 성신교정)
5월21일(화) 오전 9시	3코스 일치의 길(일부구간) (당고개성지~절두산 성지)
5월29일(수) 오후 6시30분	저녁애순례길 명동성당-김범우의 집터-한국천주교회차림터-좌포도청터-창경궁야간투어(오후 9시 해산)

141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3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서울대교구 곡산 본당, 송림 본당 / 문의: 02)727-2420

2024 예언서1 특강

내용: 유배 전 예언서(아모, 호세, 1이사, 미카, 나훔, 스바, 예레, 하바)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5월2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조창호 개인전: 1전시실
 이명화 이수정 2인전: 2전시실
 류인하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24일(수)~5월2일(목)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영적글쓰기, 현대미술-신앙을 말하다,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 되찾기 등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5월5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5월6일(월) 13시30분~16시30분

인준단체 알림

모임

5월 '쉽'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원
 때, 곳: 5월10일(금) 20시~12일(일) 10시, 명륜동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도미니코수도회 말씀여행 피정

내용: 성 도미니코의 삶, 성경강의, 성사 및 기도
 지도: 안소근 수녀, 이효준 신부 / 회비: 20만원
 때, 곳: 6월7일 19시~9일 점심, 도미니코 수도회
 (우이신설선 4.17민주묘지역 도보 5분) / 010-2034-0042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5월4일(토) 14시~17시
 곳: 여의도 한강공원(전철 5호선 여의나루역 3번 출구)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교구 순례·성베네딕도왜관(신축) 수도원 탐방

때: 6월15일~18일(수도원·대구 17곳), 7월13일~16
 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 문의: 010-3807-
 1784 라 이시들(예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영혼 상처의 특효약은 통회이다 통회 는
 물은 내 영혼을 씻기 때문이다 / 회비: 1만원
 지도: 정중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때, 곳: 매일 둘째주(토) 5월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찬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때: 5월23일~25일(성모의 밤)·10월2일~4일·10월
 25일~27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곳: 성 이시들 피정의 집(한국통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4월30일	김종국 신부	5월7일	신옥희
-------	--------	------	-----

렉시오 디비나 피정

곳: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주최, 양주시)
 문의: 010-5230-2986(cafe.naver.com/monteoliveto)

1일 피정	렉시오 디비나와 첫 토요일 신심미사 5월4일(토) 14시~17시 / 회비: 1만원
4박5일	5월15일(수) 15시~19일(일) 점심 / 회비: 30만원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 문의: 031)952-6324

때: 10시~14시 미사 / 강사: 이한택 주교

매일 첫토 신심피정	5월4일(토)	매주(목) 피정
매월 13일 파티마	5월13일(일) 전국행사,	
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	6월13일(목)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6차	5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7차	6월14일(금)~22일(토)	
제128차	7월19일(금)~27일(토)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잠시멈춤' 청년 1박2일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5월18일(토) 14시~19일(일) 17시, 가평 피정집

2024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주제: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자이다.(메시지 996번)
 미사: 구요비 주교(서울대교구 주교)와 마리아사제운
 동 사제단 / 강사: 양창우 신부(성골돌반외방선교회)
 때, 곳: 5월5일(일)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
 당(혜화동) / 문의: 02)470-5851, 010-3136-7869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피정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성가정 치유 피정: 5월6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김선태 신부, 한영임 회장
 2) 성령 감령 대피정: 5월20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이상희 신부, 이준용 신부, 한영임 회장
 3) 카나의 첫 기적 피정: 5월29일(수) 10시~17시30분
 강사: 양승국 신부, 한영임 회장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17일~19일·5월22일~24일(성모의 밤)·5월26
 일~29일(추사도)·6월21일~23일·9월2일~4일·9월7
 일~9일·9월11일~14일(추),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
 ~14일·7월20일~22일·7월25일~28일, 제주성지순례
 (추사도성지) 6월16일~19일·7월1일~3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5월10일(금)~12일(일)
성경 원독	5월17일(금)~25일(토), 6월21일(금)~29일(토)
효소 단식	5월30일(목)~6월2일(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5월14일~16일,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
 순례 일~24일, 7월19일~21일, 8월21일~23일, 9월1일~3일

성지순례	5월19일~22일, 6월3일~6일, 6월15일~18일
우도해변 포함	7월25일~28일, 8월2일~5일, 8월8일~10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6월14일(금)~16일(일)	강한수 신부(의정부교구)
7월19일(금)~21일(일)	안소근 수녀(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8월16일(금)~18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9월20일(금)~22일(일)	남궁민 신부(원주교구)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5월3일 10시~15시30분
대내이영성수련 피정	5월10일(금)~12일(일)
은인 피정 및 성모성월 기념미사	5월18일(토) 10시~17시
대침묵피정	6월21일(금)~23일(일)
성지순례 (성김대건 발자취를 따라서)	5월22일(수)~24일(금), 서울- 평주 / 문의: 062)571-5004

교육

벨칸토 성악 교실(국악성가연구소)

성가·가곡 / 초보자 환영
 때, 곳: (금) 10시, 대학로 / 010-2252-2974 강신옥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d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비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디나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김중화 신부(작은행제회) / 주제: 찬미 받으소서
 때, 곳: 5월1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다

대상: 여성 신자(선착순 15명) / 회비: 10만원
 때, 곳: 5월7일~6월18일 (화) 10시~12시, 전교가
 르멜수녀회(주최, 전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
 문의(접수): 010-2037-9262, 02)737-7765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곳: (토) 16시 레슨, 왕십리성당
 기타코드 좀 아는 중급 성가대 경험자 우대, 19시
 특전미사 참여 가능한 분 / 010-9083-8627 김희옥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2024년 순교영성 아카데미(순교영성특강)

'순교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성경·교
 의·역사·영성·인문사회과학 등)
 강사: 두봉, 송봉모, 정희완, 양승국, 백남일, 조
 한건, 김성태, 조성일, 김재덕, 유은희, 윤진, 박
 희정, 한진옥, 이경재, 류지인, 한장호, 윤홍민
 때: 4월부터 매일 둘째·넷째주(목) 14시~16시
 곳: 순교성지 새남터성지 / 홈페이지(www.
 kmartyr.com) 상세프로그램 확인·수강신청 가능
 문의(접수): 02)3275-1485 순교영성연구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 캠프모집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 프(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공통교수 한진섭 조카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양정무교수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이동욱신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봄 특강

때, 곳: 5월22일~6월19일 매주(수) 5회~13시30분
 ~15시30분(강의)·12시10분(미사), 교육회관 1층 성당
 회비: 5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5월22일	빛과 어둠의 화가 카라바조	공통교수 한진섭 조카
5월29일	성 김대건 신부, 바티칸에 서다	양정무교수
6월5일	바티칸과 비로키 미술-베르니니 중심	이동욱신부
6월12일	미술이 자연을 전하다	김광현교수
6월19일	당신의 빛으로 빛을 보옵니다-건축과 빛	김경희신부
6월19일	성 프란치스코와 르네상스	이동욱신부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5월~6월 봄학기(Ⅱ) 수강생 모집
 개강: 5월7일(화)~8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2024년 영적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원목자, 일반인
 때: 6월8일~7월6일 매주(토) 10시~16시50분
 방법: 대면(1~5주차), 비대면(2~4주차) / 회비: 25만원
 5월17일까지 홈페이지(hospice.catholic.ac.kr) 접수
 문의: 02)3147-8653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가톨릭신앙아카데미 41기 모집
 대상: 방송, 신문, 출판, 홍보, 뉴미디어 등 미디어 종사자(1973년 이후 출생) / '밀라노나' 장명숙,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 등 다양한 강사진
 수료시 교구장님 명의 수료증 부여
 때, 곳: 5월21일(화) 개강-매주(화) 19시20분부터 약 2시간(총10회), 서울대교구청(명동) 본관 501호
 회비: 15만원 / 주최: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문의: 010-5294-6207(ca_sinang_ac@naver.com)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5월3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5월4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곳: 매월 첫째주(목) 5월2일 오전 11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성당 / 미사 후 성체현시 있습니다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5월8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200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www.karf.co.kr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성바오로수도회 레벤박스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강사: 정석 교수 / 주제: 레벤박스 신간 '행복@로컬-정석의 하동·목포·전주·강릉 한달살이 이야기'
 때, 곳: 5월18일(토) 14시, 성바오로수도회 본원(미아동) / 문의: 010-2557-1361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전문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심리치료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 010-5604-1882
다음 피정	4월28일(일) 14시~19시 / 회비 없음	문의: 010-9086-1882
다음 접은이 기도모임	첫째·셋째(월) 19시30분~21시30분	

전진산 영성심리상담소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가족과 내면아이 마음 치료(집단 상담)	5월7일부터 매주(화) 10시~13시(7주)
TCI(기질과 성격)를 통한 자기이해와 타인 이해	5월18일(토) 13시~16시 회비: 9만원(검사비 포함)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모래놀이치료,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글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마음자리(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원 모집 / 문의: 02)2691-4365
 분야: 사회복지사(계약직 1명)
 마음자리 홈페이지(www.maumjari.com) 채용 공지사항 참조 / 이메일(momjari@naver.com) 접수

사당동성당 방호원(주간) 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건강하고 성실한 분 / 업무: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방호, 미화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
 근무: 6월1일부터 주 48시간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운전면허 1종 면허증(필수) 5월14일(화)까지 우편(우 07014,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3길9) 및 이메일(sdcatholic@naver.com)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 문의: 02)587-2291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종로구) 세탁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세탁근무자 0명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5월5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4월28일(일) 16시 / 수시	신내동성당 수녀원	010-8446-321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 시간 상의	수녀원(서울)	010-5604-1882
성령 선교 수녀회	5월4일(토) 14시~16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6길10	010-2691-4895 (문자)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5월4일(토)~6일(월) 2박3일	라베르나의 집(명창)	010-5715-1702
예수회	수시	성소실(마포구 신수동)	010-8332-8729
천주교서울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성모 성월·가정의 달 추천 도서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성모 성월 추천 도서



파티마

루치아 도스 산토스 지음 | 1만6천원

가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티마의 기적'에 대한 회고록
100여 년 전 파티마의 성모 발현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성모 성월 추천 도서



철학자, 믿음의 여인을 목상하다

베른하르트 벨테 지음 | 1만6천원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철학자의 10가지 시선
성모님의 삶을 목상하고 분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

성모 성월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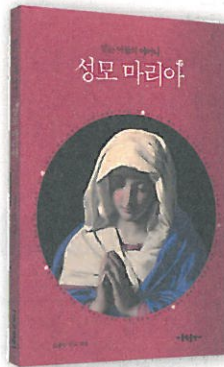


마리아의 비밀

산티아고 마르틴 지음 | 1만8천원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
성모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

성모 성월 추천 도서



믿는 이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김종수 지음 | 1만2천원

폭넓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성모님을 탐구하는 시간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목상하며
키워나가는 성모 신심

가정의 달 추천 도서



매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부부

유수인 지음 | 1만2천원

결혼 10년차 부부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치유와 성장 에세이
행복한 성가정을 꿈꾸는
부부들에게 전해 주는 생생한 꿀팁!

가정의 달 추천 도서



부모님이 나이 들어 가실 때

아니 보듀셀, 클로드 보듀셀 지음 | 8천원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언제 되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합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축 세 례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례식 : 4월 28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성모의 밤

일시 : 5월 4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목주, 초(성당 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4일(토) 오후 6시 토요일저녁주일미사는 없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5월 4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5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3월~4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재희	에밀리아	1-1	백정환	가브리엘	2-2
조택희	스테파노	3-3	이수홍	사무엘	3-4
심재진	다니엘	4-2	홍성수	디모테오	4-4
권지용	베드로	5-2	이선미	아녜스	5-2
장희원	젬마	6-5	김창하	프란치스코	6-5
장준원	프루멘시오	6-5	황인천	미카엘	7-4
최다연	프란치스카	7-5	원미아	소피아	8-1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5월 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중

◎ 연령회 미사

일시 : 5월 7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5월 1일(수)은 근로자의 날로 사무실 휴무입니다. 교리실 사용은 가능합니다.

◎ 문화학교 6월~8월 학생모집 (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개강 : 6월 1일(토)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기간 : 재접수 - 5월 15일(수)~19일(주일)
신규접수 - 5월 20일(월)~24일(토)
접수및문의 : 문화학교 오픈채팅방에 신청 아녜스 (010-4538-5665)



◎ 청년 레지오 셋별Pr. 단원 모집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라 함께 더욱 더 행동하고 기도드릴 청년 단원을 기다립니다.
회합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 206호
문의 : 안토니오 단장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4. 2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1,993	678 (34%)	642 (32.2%)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박공식 사도요한 상가 삼십만원
故 배은지 세실리아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4월 15일~21일)

곽선모 오천원 손은지 이십만원
장철호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조영선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4주일)

교 무 금 8,095,000원
주일헌금 4,975,000원
성소주일2차헌금 1,723,000원

입당	35	봉헌	513,217,213	성체	180,162,501	파견	131
----	----	----	-------------	----	-------------	----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다